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47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6.03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6 도약식 개최식 (03.10~12)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6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재활의료, 경영지원, 통합의료 각 부문별로 2026 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인 전환과 2030 비전 수립 이후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전 구성원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인 전환의 의미와 병원이 지향하는 가치, 2026년 주요 일정과 성장 방향, 부문별 사업계획과 목표가 공유되었고, 정기·특별승진 대상자와 신규 보직자에 대한 축하와 격려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도약식은 환자의 삶을 중심에 두는 병원의 철학 아래, 재활의료와 통합의료, 경영지원 전 부문이 함께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삶 중심 의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원, 환자,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석 (03.25)

우리 병원 재활의학과 김인혜 과장님, 재활간호팀 지명수 파트장님, 재활치료1팀 강봉학 부팀장님, 재활치료2팀 이선명 파트장님이 3/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로 출발해 학술대회 현장에 도착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재활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회복기 재활의 최신 흐름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복기 환자에 대한 외국 사례와 최신 경향을 비롯해, 재활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다양한 연구발표도 함께 접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복기 재활의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으로 재활의료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 중에는 (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재활의료 김연희 원장님을 만나 뵙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김연희 원장님을 중심으로 2025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학회의 비전과 회복기 재활의 미래 방향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참석은 우리 병원 직원들이 변화하는 재활의료의 흐름을 직접 배우고, 이를 현장에 더 잘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업무 협약 체결 (02.24)



2026년 2월, 해운대구청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부산시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16개 구·군으로 연계를 확대하고, 보다 통합적인 의료·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돌봄을 기반으로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참여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회복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사례회의쿨 (03.18)

우리 병원과 해운대구청은 「재가의료급여 돌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퇴원 참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대상자인 김○○님은 본원에서 약 1년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사회사업팀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하였습니다.

사례회의는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주무관 및 재가의료관리사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퇴원 이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적 평가,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주1회 밑반찬 서비스, 주1회 퇴원환자 안심 돌봄서비스, 외래진료 시 택시비 지원, 119응급안전안심벨 신청을 통한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대비, 월1회 건강 상담 및 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이후에는 사회사업팀과 간호팀이 협력하여 약 1년간 의료적·일상생활·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을 살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wrist palpation-assessment
뇌재활상지전문팀 특강 (03.27)



3월 27일에는 뇌재활상지전문팀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Wrist Palpation Assessment”였으며, 강의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에서 활동한 수부전문치료사 앨리스 정 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전문팀 소속 치료사 7명이 참석하여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론 강의와 실습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손목의 촉진과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직접 배우고 적용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참석자들에게 임상적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앨리스 정 강사님이 대표로 있는
이엠더블유리햅(EMW Rehab) 주관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였고, 병원 치료사 3명도 함께 참여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배우며 학습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특강과 주말 강의는 치료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임상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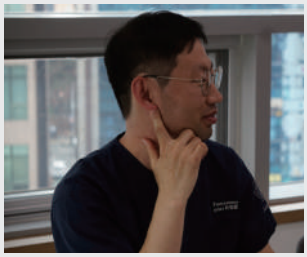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확보하는 편집 친화적 고품질 원본 전략

병원 내부 교육용 영상 촬영 강의 (03.25)








병원 내부 교육용 영상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4회 촬영교육 이후 편집 교육'의 1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딩실 권용협 실장님이 먼저 이번 교육은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 현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하여 향후 편집과 홍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원본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촬영 앱을 활용해 기획부터 촬영, 데이터 정리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익히며, 병원 기록영상을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뉴미디어팀 서수원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된 1회차 교육에서는 전체 과정의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 주제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촬영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Blackmagic Camera 앱의 주요 기능을 바탕으로 자동 모드와 LOCK 모드의 차이, 노출·화이트밸런스·초점 고정의 중요성, 그리고 병원 촬영 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까지 함께 다루며 이후 실습을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에서는 샷 구성, 인터뷰 촬영, 오디오, 데이터 정리까지 단계적으로 익히며 완성도 높은 병원 기록영상 제작 역량을 키워갈 예정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밖으로한걸음씩

(02.24 / 03.13)





이○○님과 함께 영화 관람을 위해 장산역 인근 영화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외부활동은 병원 이용 이후 처음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적응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님께서는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한껏 단장하고 오셔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영화 관람 전 간식과 음료를 함께 구매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관 내부는 휠체어 이용 시 앞자리에서만 관람이 가능하여 화면이 다소 높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님은 보행이 가능하여 뒤쪽 좌석에서 보다 편안하게 관람하셨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관람 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진행하였으며,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하여 기분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외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님은 다양한 스포츠 및 외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조건 변경을 위해 이○○님과 함께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번에 시험을 통과하자는 마음으로 시험 전날 지하 2층에서 핸들 돌리기, 핸드 컨트롤러 조작 등 운동능력평가에 필요한 동작들을 미리 연습하였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 보였지만 보호자분의 격려와 칭찬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해양의 역사와 과학, 산업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관람하였습니다. 평일이라 방문객이 많지 않아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으며,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부에는 음식점과 카페도 마련되어 있어 나들이 장소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스포츠체험 (03.03)

탁구체험을 위해 한마음스포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OO님은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랠리를 이어갈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시며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박OO님과 김OO님은 병원에서도 서로 잘 지내오셨는데, 이번 탁구 활동을 통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등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체험이 퇴원 이후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탁구를 떠올려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3.06)

6층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 출석왕 김○한 : "낮병동에 꾸준히 다니며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출석왕 야나카○○○○ : "원장님, 작업선생님 운동선생님, 함께하는 낮병동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자립왕 박○수 : "함께 와주는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 자립왕 배○철 : "늘 바쁘신데 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춰 서로를 향한 응원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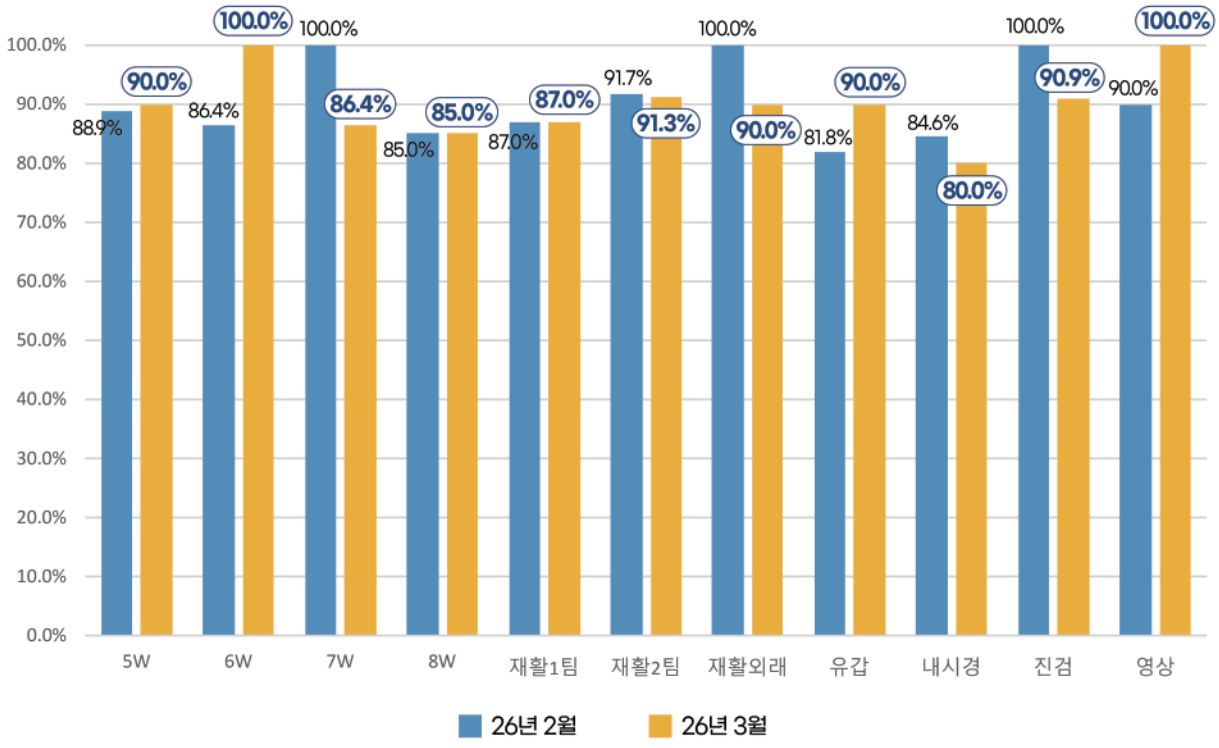
2026년 3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3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2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78	160	89.9%	**0%**

3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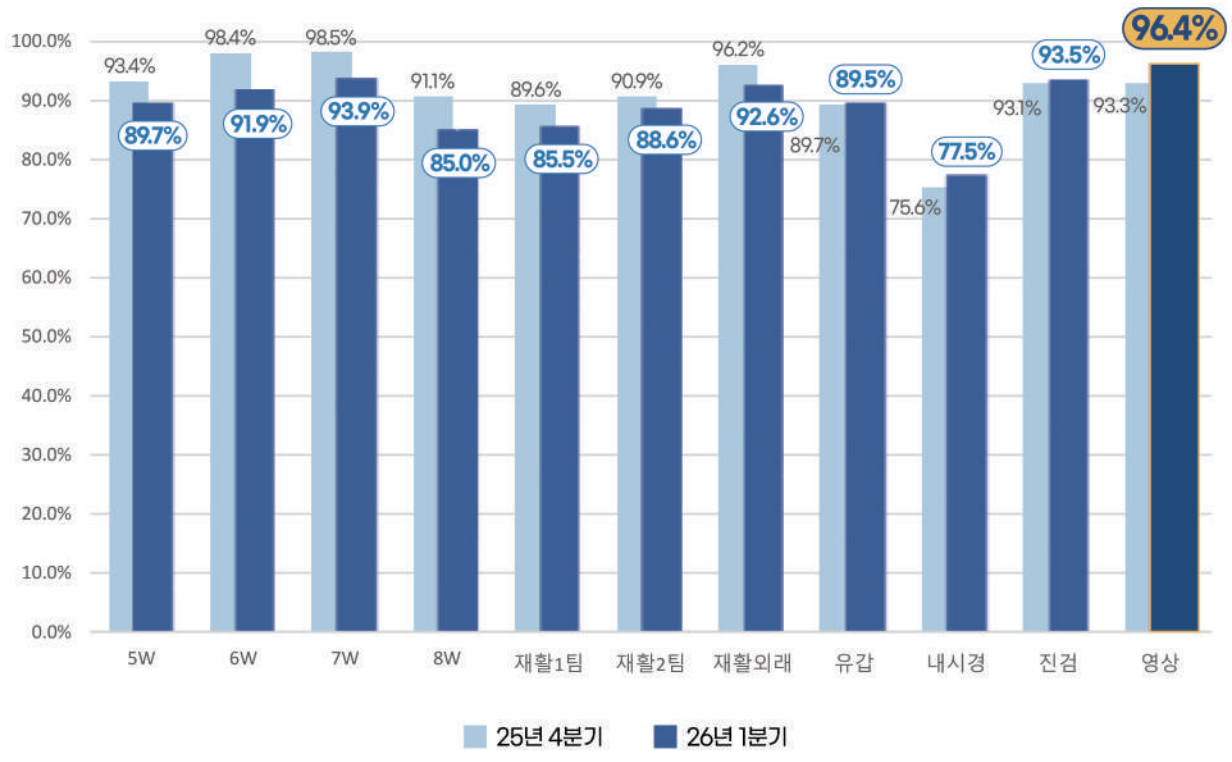
2026년 1분기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지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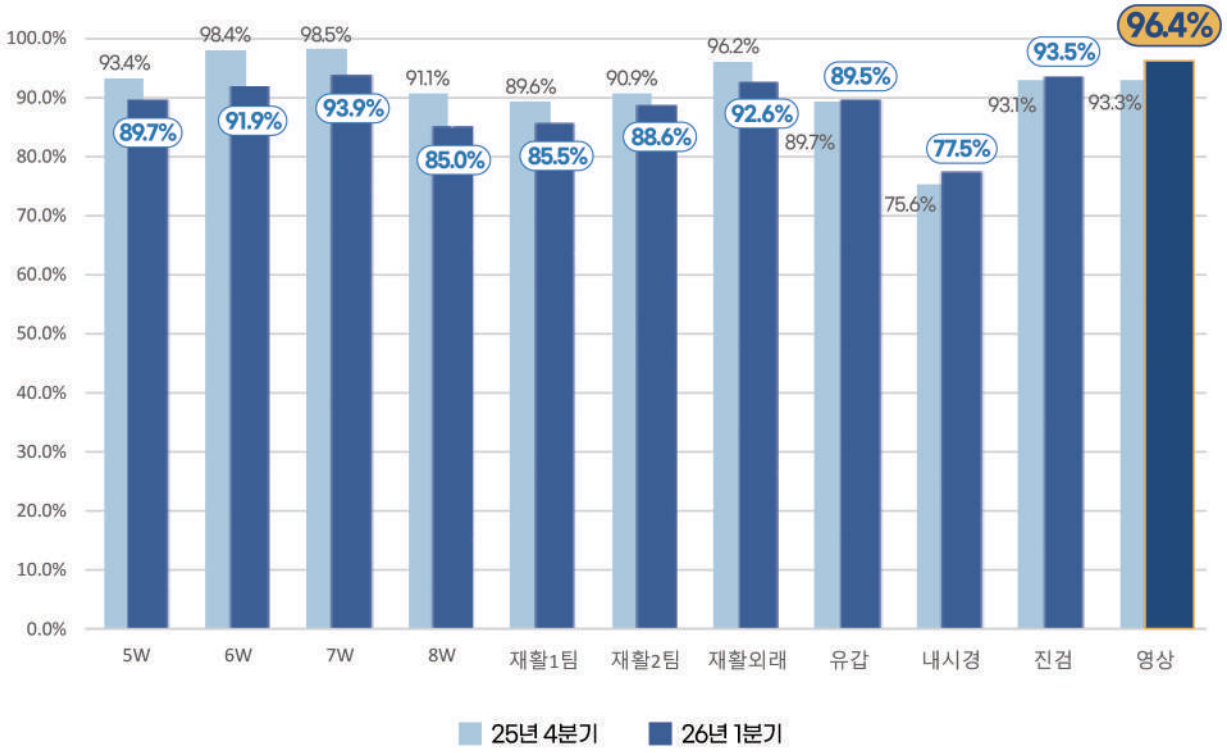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543	483	89.0%	-2.8%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영상의학팀' 1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3.18)

2026년 1분기(1월~3월) 손위생 수행률은 총 543건의 관찰 중 483건이 수행되어 89.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목표치인 90%에 1.0%p 미달한 수치로, 지난 분기 대비 2.8%p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영상의학팀이 96.4%로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여 우수한 실천 수준을 나타냈으며, 7W(93.9%),
진단검사의학팀(93.5%), 재활외래(92.6%), 6W(91.9%)도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내시경은 77.5%로 가장 낮았으나 지난 분기 75.6%에서 소폭 상승해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전분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러 부서에서 여전히 높은 손위생 실천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손위생은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앞으로도 전 부서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손위생 수행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책 밖에서 만난 이야기, 3월 문화생활

다독다독 '왕과 사는 남자' 관람 (03.26)







3월의 독서모임은 책장을 잠시 덮고, 함께 영화관으로 향하는 작은 문화산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책을 나누는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의 영화 관람은 또 다른 방식의 '읽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작품은 1,500만 관객을 넘어선 한국영화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관람 전에는 가볍게 샌드위치를 먹으며 일상을 나눴고, 팝콘을 손에 들고 오랜만의 나들이 같은 설렘으로 함께 입장했습니다.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관람이라는 회원도 있었지만, 좋은 이야기는 다시 만나도 여전히 마음을 움직이는 법인지 상영이 시작되자 모두 금세 영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두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흘렀고, 웃음과 몰입, 그리고 말로 다 전하기 어려운 여운이 긴 시간 가슴에 남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돌아가는 길은 조금 조용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을 품은 채 집으로 향했지만, 그 무거운 여운마저 함께 나눈 시간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모임답게, 이번 영화 관람 역시 한 편의 작품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말처럼,
무엇보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다독다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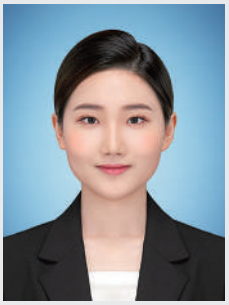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독서동아리

※ [다독다독]은 상시 회원을 모집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 O.K.!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언제든 **[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03월의 신규입사자



소화기내과 류승훈 부장



내과내시경팀 박시은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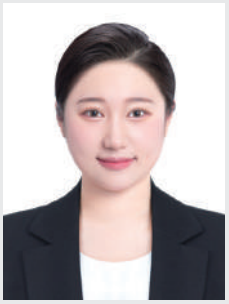
내과내시경팀 육영서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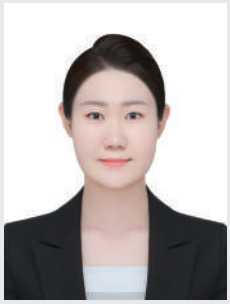
재활간호팀(5W) 김성현 간호사



재활간호팀(6W) 김은서 간호사



재활간호팀(5W) 김한샘 간호사



재활간호팀(8W) 류진선 간호사



재활간호팀(8W) 문다교 간호사



재활간호팀(7W) 진소운 간호사

우리는 가족입니다.
03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7W) 김미미 간호사



재활간호팀(6W) 강민준 간호사



재활치료2팀 이혜진 작업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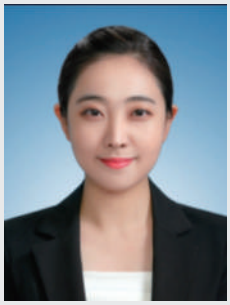
영양팀 정은숙 조리원



내과내시경팀 박지영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이희숙 팀장



재활간호팀(5W) 정희정 간호사



재활간호팀(5W) 조상미 간호조무사

새소리 들으며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 인사 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해인 詩《봄 인사》중 -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포켓 속의 오케스트라

행복하모니

하모니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모니카 연주는 **호흡근 강화 및 구강·안면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점은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음악 속에 녹여내고,
행복을 노래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마음 치유를 위한 '행복 하모니'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대상	**입원 참여자 및 보호자, 직원**
강사	프라미스 쳄버오케스트라 대표 정희자
수업 일시	**4-7월** 총 8회 / **화요일 오후 6~7시**

4월	5월	6월	7월
4/7, 4/21	5/12, 5/26	6/9, 6/23	7/7, 7/21

* 강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소	4층 작업치료실	수강료	15,000원 (총 8회)
준비물	하모니카 별도 구입 (신청 시 안내/1~3만원대)		
모집 일정	상시 모집	신청 방법	5층 사회사업팀 방문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헤럴드경제 기사 QR코드 스캔

▲ 부산일보 기사 QR코드 스캔

척수장애인 사회복귀 돕는 '한국형 척수통합재활센터' 건립 가속화

후원회 임명식 개최 (03.19)

나눔과행복의료재단과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지난 19일,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척수통합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위원회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전환기 중심 통합재활 모델인 '한국형 척수센터' 건립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센터 건립은 시민 후원금 300억 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백선미 대표이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 및 운영위원회 가동을 통해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창식 후원회장을 비롯해 1억 원 이상을 약정한 주요 기부자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총 40명의 후원위원을 임명했습니다. 특히 KLPGA 조하리 프로의 우승 상금 기부식과 더불어, 후원자들이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도너월(Donor Wall)'에 직접 등재하며 척수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이정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03.17 / 03.27)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80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한마디

해나행 칭찬직원



갑상선유방센터

영상의학과 **김현수** 과장

나눔과행복병원 이름처럼, 참 병원다운 병원을 만난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병원에선 환자 접수와 진료, 각자 할 일에 바빠 환자 심리 상태는 돌보지 않는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입구에서부터 친절한 응대, 잘 갖춰진 접수대, 그리고

친절한 간호사분들의 안내와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을 만나 기분 좋게 진료받았습니다.

특히 김현수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사이의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져, 진료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더 신뢰가 가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시설이나 서비스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섬세하니,

직원들이 하나 된 모습이 나눔과행복병원이라는 이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A+++같은 병원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객소리함
바로가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고객님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공지] 의료법인 및 병원 명칭 변경 안내

병원장님 말씀(03.10)

안녕하세요, 백선미입니다.

현재 법인 전환 신고 절차와 도약식 일정이 촉박하게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정식 공표에 앞서 운영위원회 및 리더그룹의 자문을 거쳐 전 직원 단톡방을 통해 이 소식을 먼저 공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할 '의료법인명'과 '병원명'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병원명이 다소 길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션을 더 명확히 하고,
각 의료 단위를 포괄하면서도 간결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마침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기점을 맞아 향후 5년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었고,
지금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 판단하여 명칭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고 경영전략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운영위원회 및 리더그룹의 자문을 구한 끝에,
'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산하 '온길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새 이름의 의미를 아래 자료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온길병원이 열어갈 새로운 여정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길병원 브랜드 스토리]

질병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의 조각들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흩어진 삶의 조각을 다시 맞춰,
'온전한 나'로 돌아가게 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길,
다시 세상과 만나는 길,
그 따뜻하고 바른 방향.

이곳은 당신의 삶이 온전해지는 길,
'온길병원'입니다.



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온길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걸어 **온 길** 그대로
그 길이 앞으로도 가야할 **따뜻한**(溫) **길**이며,
의료가 가야할 **온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1) '온'

① 온(Whole) : 온전한 삶, 전 생애주기

■ 의미 : '온'은 백(100, 百)의 순우리말로, '모두', '빠짐없이 완전한'을 뜻하는 말
(예_온통, 온갖, 온음)로 쓰입니다.

■ 가치 :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 글자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의료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질병과 사고로 인해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맞춰 '온전한(Whole)'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나아가 환자의 100년(온) 건강을 책임지는 생애 전주기 통합 케어에 대한
굳건한 지향성을 내포합니다.

② 온(溫) :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함'

■ 의미 : 한자 '따뜻할 온(溫)'의 의미를 담아,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미션(사람을 봅니다)을 계승하는 우리의 태도를 담습니다.

■ 가치 : 차가운 의료 지식 너머, 따뜻한 가슴으로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인본주의 의료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현합니다.

③ 온(On) : Off 가 아닌 On

■ 의미 : '켜다(Switch On)', '계속 나아가다(Go On)'의 의미로,
멈추었던 일상이 다시 역동적으로 흐름을 의미합니다.

■ 가치 : 투병으로 잠시 꺼져있던 환자의 생명력과 일상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삶을 주체적으로 지속하게 한다는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④ 온(On) : ~을 중심에 둔, ~을 향한

■ 의미 : 병원의 모든 시선과 치유의 방향이 오직 '당신(You)'을 중심에 두고
켜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가치 : 질병의 치료와 함께 환자 개인의 고유한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삼는
'환자 중심' 철학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2) ‘길’

① 길(Gil) : 방향을 잃지 않는 '올곧은 길'

■ 의미 : 목적지를 향해, 곧게 이어지는 길, 말 그대로의 ‘길’을 의미합니다.

■ 가치 : 어떠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직원과 환자와 사회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합니다.



3) '온길' : 온(On)길, 온(溫)길, On-Gil(Whole Road, Way, Path)

① Whole-Gil (온전한 길)

병원 문을 나서는 것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온전한 회복까지 지원합니다.
소중한 신체를 온전히 지켜내고,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면역 회복을 통해
치료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② On-Gil (당신을 중심에 둔 길)

언제나 '당신(환자)'을 중심에 두고(Focus On)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100(온) 명의 환자에게는 100(온) 가지의 고유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그 모든(온) 길은, 환자 개개인의 삶이 세상과 다시 맞닿는
'온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③ 溫-Gil (따뜻한 동행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가 나아가야 할 '따뜻한(溫) 길'입니다.
질병이라는 차가운 현실 너머, 가장 고되고 막막할 환자의 회복 여정에
따뜻한 공감으로 동행합니다.

④ On-Gil (변함없이 이어지는 굳건한 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지금까지 환자를 향해 걸어온 진정성의 시간을 긍정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계속 걷겠다(Go On)는 굳건한 다짐입니다.
질병으로 잠시 멈추었던 일상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환자가 주체적인 삶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이끄는 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4) ‘온길(On-gil) 병원’ 브랜드 스토리

질병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의 조각들을 흩어 놓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는
아픈곳을 낫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
‘온전한 나’로 돌아가게 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길,
다시 세상과 마주하는 길,
그 따뜻하고 바른 방향.

이곳은
당신의 삶이 다시 온전해지는 길,
‘온길병원’ 입니다.

5) '온길(On-gil) 병원' 브랜드 슬로건

'온전함(Whole)', '방향(Compass), 따뜻함(溫)''의 가치

① 미션 계승형 - "사람을 봅니다, 온전한 길을 엽니다."

■ 의도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핵심 철학인 '사람을 봅니다'를
슬로건에 직접적으로 연결했습니다.

■ 해석 :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바라보며(사람),
그들이 사회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온전한 길)을 열어준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② 가치 강조형 - "회복의 바른 방향, 내일로 가는 온길"

■ 의도 : '나침반'이 하는 역할, 바로 '바른 방향 제시'를 표현했습니다.

■ 해석 : 흔들리지 않는 의료의 기준(방향)을 제시하고, 환자에게는 희망찬 미래(내일)로
안내하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③ 회복 중심형 - "다시, 삶이 온전해지는 길"

■ 의도 : '사회 복귀'와 '신체 보존'을 아우르는 '온전함'을 강조했습니다.

■ 해석 : 질병과 사고로 무너진 삶을 이전 처럼, 혹은 그보다 더 단단하게 회복시킨다는
회복의 본질을 담았습니다.

④ 감성 공감형 - "다시 삶으로, 온전한 회복을 여는 따뜻한 동행!"

■ 의도 : 환자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로의 복귀'와 '온전함(Whole)' 및 '따뜻함(溫)'을
직관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병원을 단순한 의료 제공 공간이 아닌,
길고 고된 치유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걷는 '따뜻한 파트너'로 포지셔닝하여
환자들에게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자 했습니다.

■ 해석 : '온전한'과 '따뜻한'의 반복되는 라임(-한)으로 부드러운 리듬감을 살려
입에 쉽게 붙도록 했습니다

⑤ 임팩트형 - "온전한 회복, 따뜻한 동행!"

■ 의도 :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법인의 핵심 가치를 전달합니다.

■ 해석 : '온'이라는 글자를 두 번 반복(Alliteration)하여 기억하기 쉽고,
기술적 목표(회복)와 인문학적 태도(동행)를 균형 있게 보여줍니다.

열린결말 첫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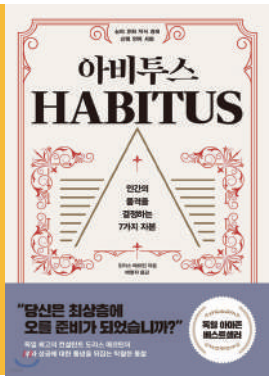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01

월간소식지에 '정해진 형식의 소식 정리'보다,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책, [아비투스]를 읽고 (해나행의) 사람'들'을 봅니다

브랜딩실장 권용협



우리집에 불났대

딱 1년 전 LA에 우리집이 있었다고 상상해 볼까요? 상상은 자유니까!
와우~ 상상만으로도 살짝 행복해지는 분들... 있을 겁니다.
문제는 2025년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집도 그 화마로 전소될 가능성 100% 상황입니다.

산불이 집을 덮칠지 모른다는 걸 인지한 시각과 위치는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창밖에 화마가 일렁인다? 뉴스에서 이미 이웃마을까지 다 탔는데 바람이 우리 마을 쪽으로 분다고 들었다? 야근하고 돌아오는 차창 밖으로 멀리 산너머 붉은 기운과 연기가 보인다?
이럴 때 우린? 무조건 살 방도를 찾아야죠. '살 방도'란, 당장 화마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행동부터 집이 사라진 근 미래 상황에서 버틸 방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탱해 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서 지킬 수 있는 방도일 겁니다.
'뭔 고민, 당연 현금이지?'
이쯤되면 복잡해집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지만 돈만 가지고 살 수도 없으니까요.
불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냐에 따라 꼭 보존해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달라질 겁니다.
가장 소중한, 그 다음 중요한, 있으면 좋은, 없어도 굳이, 당장은 의미없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일 때, 모든 사람이 챙길 것 같은 가장 소중한 게 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핸드폰과 노트북,
장판 밑에 깔린 5만원 지폐,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금붙이들,
아이들과 어릴 때 찍은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이나 배냇저고리 조각,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대대로 내려오는 조선백자, 달라이라마가 직접 써준 축원 편지
아직 이 위급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이웃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기...

나의 코어자산은?

각자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다른 이유는 개인이 가진 경험과 가치관이 '중요도'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겠죠. 학습된 "코어 자산"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자산(또는 자본)이란, 희소성을 전제로 양적으로 정의 가능하고, 축적이 가능해야 하며, need, want, wish의 대상을 통칭하는 거라 정의하겠습니다(물론 이전/증여/수령의 용이성 등 조건을 더 붙일 수도 있지만, 니드, 원트, 위시하는 것들 중에는 이전 불가한 것들도 많으니까요. '씨족마을에서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다' 는 말도 있잖아요? 지혜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전, 증여, 수령은 힘들죠). 목숨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논외로 하고, 코어자산은 목숨 다음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학습된 경험이 다르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도 당연하구요.



그런데 이런 코어자산은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의 총체이긴 하지만, 실은 개별 캐릭터의 영역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랍니다. 속한 집단의 자산 개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학습된 코어 자산 개념이 전승, 유지, 강화 과정을 겪으면서 집단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형태를 띈다네요.

프랑스 철학자 부르디외는 이 개념을 아비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Habit는 개인의 습관이지만, 따지고 보니 Habitus라는 집단의 습관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어린 시절, 뭔가 잘못해서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도 친구들이 보는 앞이기 때문에 짝다리 정도는 짚어줘야 인정받을 것 같은 최소한의 반항기 장착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짝다리가 자기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제 개성이 아니라 또래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과포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사무라이나 중세 기사들에게는 가문의 명예가 목숨보다 귀했을 것 같기도 하구요.)

부르디외는 흔히 자산, 자본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경제 자산(자본)에 더해서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으로 확장해서 제시(책 저자는 지식자본, 언어자본, 신체자본 등으로 더 분화시킵니다)했는데요.

나는 신세대인가? 영포티인가?

이쯤되면, 내가 가진 콘텐츠(말, 신체, 기술/지식)와 태도(표정, 어휘/문장, 행동)는 어떤 아비투스로 읽힐까? 내 아비투스는 어느 집단을 표상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뻗어가게 됩니다(이미 오래전에 포티를 넘겼지만, 누구는 가끔 저를 가리켜 영포티/꼰대/아재로 분류하기도... 한때는 신세대/서태지세대기도 했는데^^).

말하자면, '내가 발을 걸친 집단들 마다 알게모르게 표방하고 있는(관찰 가능한) 아비투스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아니 생길 수 없네요.

특정 계층이 소비의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적 경험('마담 뚜'만 하던 부동산 투기가 대중화된 강남개발 이후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게 된 시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고 보니 사교육 산업이 지니계수 개념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급성장하기 시작한 시대,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관련 산업의 수요가 확장되는 시대, 오로지 팔 거라고는 인생 밖에 없어서 시간을 주고 대신 돈을 받는 임금노동자들이 어느 순간 자본가들이나 하던 각종 주식이나 펀드를 들면서 금융소득을 위해 러시 물결에 동참하기 시작한 시대, 비대면 여가 산업의 새 장을 활짝 열어 준 코로나 시대 등)은 마케팅 산업의 리더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제공했습니다. 특정 층을 묶어서 특정 세대로 부각시키면(소비의 주체로 전진 배치하면) 없던 산업 하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

저는 그렇게 신세대가 되었다가 X세대도 되었다가, 최근에는 영포티까지 되어 있더군요.

돌아보니 이게 다 불손한 의도로 양산된 '세대' 개념이지만 소비력이 받쳐주는 특정 세대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그럴듯한 아비투스를 부여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라는 건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몇몇 지인들과 아주 진지하게, 마케팅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 세대(20세기, 70년대, 대한민국 생)를 규정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은 '낀세대' 였습니다. 아날로그로 이뤄진 세상에 태어나서 급변하는 기술 혁명 시대의 모든 순간을 성장기와 청장년기로 보내면서, 매일매일 도태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떡하든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감힘을 써 온 세대.
우리 윗세대는 그 윗세대의 롤 모델을 따라가는 게 최선의 성장과정이었고 완성의 길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세대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정신없이 등장하는 신문명 앞에서 제자리 걸음이 되지 않도록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속보, 경보, 마라톤에 강제로 동참해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날 때부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자랐고, AI와 친구먹기가 전혀 낯설지 않으며, 3한4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학습으로만 알게 된 세대죠. 어쩌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접점 쯤에 생을 시작해서 이리 낑기고 저리 낑긴...



20세기, 70년대, 대한민국 생이라고 아비투스가 다 같을 순 없죠. 거주 지역, 경제적 위치, 가족의 규모 등 다종한 집단성에 따라 각자는 수많은 아비투스의 흔적을 낙인처럼 새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단, 우리 병원은 어떤가요?
해나행스런? You know how 나행인s are...?
해나행에 다니는 내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코어자산은 뭘까요?
그게 오랫동안 누적, 학습되면서, 전승, 유지, 강화되면서 아비투스로 존재하고 있나요?
그게 뭇사람들의 need, want, wish의 대상인가요?

3실은 뭐 하는 곳이죠?

사실 입사 때부터 좀 궁금했습니다.
해나행은 왜 경영지원 조직을 촘촘하게 세분화해서 마련해 놓고는, 다시 3실이라는 기능을 따로 뒀을까?
물론 어슴프레하게나마 존재이유와 활동범위를 규정해 가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잠정적 결론이 이 책을 통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확연해졌습니다.
우리 병원의 코어자산을 크게 3파트로 나눠서 관리하는 곳이 3실이지 않을까라는 결론.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쥐고 가야할 자산으로
경영분석실은 경제 자산을,
브랜딩실은 상징-사회 자산(거칠게 말하면, 평판)을,
조직문화성장실은 사람-문화 자산을,
각각 주어진 코어자산 관리 영역을 누적, 전승,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는 결론입니다.
2실도 4실도 아닌 3실이면 해나행의 자산들은 빠짐없이 다루니까요.
말하자면 해나행의 물질적/비물질적인 모든 자산의 금고지기?

하루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노곤한 퇴근시간이 다가옵니다. 매일 정신없이 보내는 와중에 새해 벽두부터 5년 뒤의 미래상과 올해 계획을 두고 서로의 뇌를 붙잡고 열띤 토론을 했던 건,
우리가 가지려는 코어 자산이 무엇인지(What) 정의하고,
왜 그러한지(Why) 공유, 합의하고,
기존 자산을 늘리거나, 없던 걸 획득하거나, 필요없는 걸 과감하게 버리는 방법(How)으로
해나행의 아비투스 상을 재정립 해 보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호떡집 불난 듯한 상황이 그려져서 한숨이 절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재실, 부재중, 회의중 & 궁리중
브랜딩실만 보자면 호떡집 불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불길 앞에, 기존의 브랜딩실은 전소 100%가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과연 뭘 챙기고 뭘 버리는 결정을 해야할까요?
당분간 브랜딩실은 절체절명의 선택 상황에서, '살 방도'를 찾기위해 서로의 뇌를 붙잡고 열나게 토론하며,
재실, 회의중, 부재중 말고, [살 방도 궁리중] 모드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행인들의 살 방도,
나행인으로 함께 살자고 하는 사람들의 살 방도.

아비투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도리스 메르틴 저/배명자 역 | 다산초당 | 2020년 08월 03일
원제 : HABITUS. SIND SIE BEREIT FUR DEN SPRUNG NACH GANZ OBEN?

* 참고로 이 책 읽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철학적 성찰이 담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계발서에 가깝더라구요.
주로 '최상위층의 아비투스 특징을 파악했더니 이렇더라'하는 내용입니다.
아비투스라는 게 결국 나와 세계의 작용 반작용의 결과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변적인 것이라 전제하면서도, 이미 최상위층의 아비투스는
'흉내내기 힘든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투스에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계발을 해야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독자(청중)를 위한 조언에 가깝다고 할까요? 여기서 일차 거부감 살짝.
그동안 접했던 유럽 작가의 저작은 영미권 보다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글이 많았는데 이 독일인 작가는 그닥 그런 느낌이 안들었어요.
이차 거부감 살짝 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그렇듯, 이 책도 본인이 했던
대중 강의 내용들을 책으로 출간할 정도의 분량으로 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비투스라는 개념과 그걸로 세상을 이해할 시각을 넓혀보려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부르디외(프랑스 철학자들의 난해함에 도전할 용기 충만한
분이라면)를 읽어보길 권합니다. 전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



브랜딩실장 권용협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28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전주비빔밥

“여기는 비빔밥이 맛있고,
파스타 맛집이고, 미역국이 끝내주고...”









라운딩 때 내가 먹어본 음식 순위라며 일러주신 그 메뉴 중
가장 먼저 나온 비빔밥!
제일 좋아하신다는 비빔밥 중에 이번에는 전주비빔밥을
영양팀 스타일로 재해석해 밥상으로 초대 해 보았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어낸 밥 위에
슴슴하게 간을 한 청포묵과
채 썬 표고, 호박, 무, 당근을 둘러 담아
동글동글하게 구워낸 계란을 딱 올리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전주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약고추장 한 숟갈 넣어 비빈 후,
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냉이가 들어간 냉이된장국을
곁들이면 이것이 천국의 맛이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비빔밥은 장수하는 백세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이 한 그릇으로 백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영양팀 마음을 듬뿍 담아 보았습니다.

이제 나날이 따뜻해지는 계절의 시작입니다.
모두의 마음에 따뜻함이 가득 담기길 기원하며
영양팀은 음식에 따뜻함을 가득 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3.17)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이란 얼마큼 행복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라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것을,
_임경선『태도에 관하여』

오늘의 식단을 보며,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구나 생각하며,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면,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 별거 아니죠?ㅎㅎ

소소하지만,
잠시 스쳐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행복하길 바라며,
영양팀에서는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함께 행복함을 느껴 보아요.~



초딩 빨간 띠 따던 그놈, 4품을 땄다

결과보다 오래 본 것은 그 과정이었다

녀석이 올해 중3이 되었다.

브런치에 「초딩 빨간 띠 따던 날」이라는 글로 한 번 등장했던 그놈, 우리 집 첫째 아들이다.

일곱 살 때 유치원 태권도 유아체능반에 다니며 1년 내내 데굴데굴 구르기만 하더니,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정식으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구김 하나 없는 새하얀 도복을 입고, 얼룩 하나 없는 흰 띠를 배 위에 단단히 묶은 채 도장으로 향하던 작은 등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발차기도 제대로 안 되던 아이였다. 몸은 둔했고, 동작은 서툴렀고, 표정만 늘 비장했다. 그랬던 녀석이 빨간 띠를 따던 날, 괜히 벅차서 끄적였던 글이 있었다. 그 글이 문득 떠오른 건, 아마도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중3이 되기 한 달 전, 올해 2월.

큰아들은 국기원에서 진행하는 태권도 4품 심사에 도전했다. 성인 기준으로 치면 4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품증은 일정 나이가 되면 단증으로 바꿀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알지도 모르겠다. 입대 전에 품증을 단증으로 바꿔 가면 군대 안에서 하는 태권도는 대체로 열외였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까마득한 내 군대 시절엔 분명 그랬다. 고작 1품이었던 나도 그 덕을 봤으니 말이다.

그런데 4품이 단순히 태권도를 오래 했다는 증표만은 아니었다. 이날 처음 알았다. 일정 조건이 되면 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범의 자격과도 연결되고, 심지어 일부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까지 붙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3품까지만 따고 한동안 그만두었다가, 4품을 응시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와 특별심화반 같은 데서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설명을 듣는데 묘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의 시간과 땀, 좋아하는 운동마저도 벌써부터 점수와 조건으로 환산되는 것 같아서. 중1, 중2 때는 공부 때문에 쉬었다가, 4품 앞두고 다시 학원에 와 바짝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놀랍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우리 집 놈은 그런 계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랐다.

그저 초1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태권도장에 갔다.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빠르게 늘어서 간 것도 아니다. 그냥 꾸준히 갔다. 어떤 날은 가기 싫다고 투덜대면서도 갔고, 어떤 날은 도복을 입고 괜히 우쭐해하며 갔고, 어떤 날은 땀 냄새를 진동시키며 돌아왔다. 어쩌면 그 오랜 시간의 의미는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자기 자리를 지켰느냐'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심사 당일 아침, 녀석은 평소답지 않게 말수가 적었다.

계란프라이 하나에 밥 몇 숟갈만 겨우 뜨고는 상기된 얼굴로 도장으로 향했다. 함께 태권도를 다니는 동생과 아내, 그리고 나는 뒤이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사직야구장 근처 부산시체육회 건물로 향했다.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에서는 그날 심사를 보는 사람이 녀석 한 명뿐이라, 사범님과 둘이 노란 봉고차 대신 개인 승용차를 타고 먼저 갔다고 했다. 그런 사소한 풍경까지도 괜히 기억에 남는다.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는 별것 아닌 장면들까지 오래 붙들게 된다.

건물 안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1품부터 4품까지 심사를 보러 온 아이들과 성인들이 대기실과 복도를 빼곡히 메운 채 마지막 연습에 한창이었다. 작은 아이도 있었고, 다 큰 청년도 있었고, 이미 체격부터 범상치 않은 이들도 보였다. 그 사이를 지나 실내강당에 들어섰을 때, 우리 아들은 심사 준비를 한다며 어설픈 가부좌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를 발견한 순간, 반가운 척은 하지 않고 한쪽 입꼬리만 슬쩍 올리며 웃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닌, 사춘기 초입 남자애들만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금세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표정 하나에 긴장, 민망함, 허세, 안도감이 다 들어 있었다.

심사는 여덟 명씩 진행됐다.

같은 조에 누구와 서느냐에 따라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덜 나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하필 우리 아이 옆에는 발차기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여자아이 둘이 서 있었다. 품새는 자신 있어도 발차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녀석에게 그 장면은 꽤 치명적으로 보였다. 부모 눈에는 그렇다. 남의 아이 장점은 더 크게 보이고, 내 아이의 부족함은 유난히 선명하게 들어온다. 뒤에서 심사를 지켜보던 사범님은 괜찮다고 했다. 심사위원들은 단순히 발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동작이 얼마나 빠르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자세의 정확성과 기본기를 본다고. 무엇보다 4품을 앞두고 잠깐 돌아온 아이들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다닌 아이들은 동작 하나하나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다.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오래 해온 아이.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성실하게 쌓인 시간. 어쩌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평균 합격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는 떨어진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큰아들은 평발에 발 아치 각도 문제까지 있어 몇 년째 고신대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교정 깔창도 신고 다닌다. 혹시라도 떨어질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아내와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 부모 마음이야 늘 흔들린다. 아이 앞에서만 태연한 척할 뿐이다. 그래도 끝내는 그렇게 생각했다. 4품은 과정 끝에 따라오는 결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태권도에 보내는 이유는 어떤 자격이나 가산점 때문이 아니라, 하루 중 마음껏 뛰고 땀 흘릴 시간이 사실상 그 시간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국어, 수학 학원은 미뤄도 태권도는 쉽게 끊지 못했다. 이 아이에게 도장은 단순히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몸으로 버티고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넘어지고, 다시 서고, 숨차게 뛰고, 땀을 흘리는 일. 그건 책상 앞에서는 배울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다.

심사가 끝난 뒤, 녀석은 아쉬운 얼굴로 연신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잘할 걸. 발차기를 더 올릴 걸. 품새를 더 또렷하게 할 걸. 그런 후회가 표정에 그대로 묻어났다. 아내와 나는 "잘했다"는 말을 했지만, 솔직히 그 말이 그 순간 아이 마음에 얼마나 닿았을지는 모르겠다. 늘 그렇듯 큰일 하나를 치르고 나면, 우리 가족은 먹을 것으로 위로를 대신한다. 잘했든, 못했든,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허기진 날들이 있다. 식탐의 끝판왕인 큰아들은 음식을 먹는 속도만큼 빠르게 그날의 긴장도 잊어버렸다. 역시, 녀석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달 뒤.
합격 소식이 왔다.
우와, 싶었다.

대단하다, 정말.
운이 좋은 건지, 꾸준함이 끝내 점수를 받은 건지 모르겠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심사 보던 날에도 맛있는 걸 먹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날에도 또 맛있는 걸 먹자고 한다. 거의 먹기 위해 시험과 심사를 치르는 수준이다. 그런데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난다. 아이는 아이답게 기뻐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뿌듯해한다. 별것 아닌 저녁 한 끼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

중3이 되어도, 4품에 합격하고도 여전히 태권도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큰아들이 대견하다.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은 또 복잡하다.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는 국어나 수학 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모든 학원을 다 보낼 형편은 아니니, 아이도 그 사실을 눈치로는 알고 있을 것이다. 현실은 늘 마음보다 앞서고, 부모의 선택에는 늘 계산이 따라붙는다.

몸매나 발차기를 보면 5품은 쉽지 않아 보이고, 고등학교에 가면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도장 갈 시간도 거의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니 아마 올해가 이 아이가 가장 열심히 태권도장을 다닐 수 있는 마지막 해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보내고 싶다. 적어도 저녁 한 시간쯤은 책상 대신 몸을 쓰고, 땀을 흘리고, 친구들과 부딪치며 크는 시간이 있었으면 싶다. 실제로 녀석도 말한다. 자기는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이 좋은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면 괜히 안심이 된다. 공부 성적표에는 찍히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는 힘이 있다는 뜻 같아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결과보다 과정을 오래 지켜보는 일이라고. 빨간 띠를 따던 초등학생 시절에도, 4품 심사를 보던 중학생이 된 지금도, 아이는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조금은 부족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 눈에는 그런 부족함까지 포함해서 자라는 게 보인다. 잘하는 모습보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더 오래 남고, 완벽한 동작보다 끝까지 해내는 얼굴이 더 크게 기억된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에피소드 하나 더.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두 살 터울 둘째놈도 어느새 3품이다. 형보다 몸도 좋고, 훨씬 날렵하고, 발차기도 잘한다. 형은 중3 올라가기 전에 4품 심사를 봤지만, 둘째는 올해 중1 가을에 4품 심사를 보게 될 정도다. 형의 심사 모습을 보고는 "내가 더 잘하겠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우리가 봐도 둘째는 운동신경이 탁월하다. 참 신기하다. 같은 집에서 크는 형제인데도 이렇게 다르다.

그래도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 속도로 자란다. 누군가는 날렵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 누군가는 조금 느려도 오래 버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그 속도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빨간 띠를 따던 아이가 이제는 4품을 땄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자랐고, 우리도 같이 늙었다. 예전에는 띠 색깔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 띠보다 그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아이 마음이 먼저 보인다.
그러니 이번 4품 합격은 단순히 하나를 더 땄다는 뜻이 아니다. 오래 다닌 시간, 쉬지 않고 버틴 시간, 그리고 아직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나는 그 결과보다도, 그 말을 더 오래 기억할 것 같다.

"중3이 되어도 태권도는 계속 다니고 싶어요."

그 말이 괜히 좋았다.
아직은 이 아이에게,
땀 흘리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 같아서.

▲ 예전에 올렸던 '브런치' 초딩 빨간 띠 따던 날, 엄마의 자기 주도 놀이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47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3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